내가 시장이라면…광주시 '새싹 자치교실'

초등생 215명 12월까지 참여
시청사 견학·지역문제 토론
중고생 공무원 진로체험도

광주시는 미래 행정고객이자 지역공동체의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반기 '새싹 자치교실'과 '공무원 진로체험 더하기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새싹 자치교실'은 사회과목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수업의 현장체험 형태로 주민자치의 개념과 과정 등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교재를 활용해 진행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다양한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해결 방안 등을 발표하는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수업을 통해 주체적인 참여의식을 높이고 광주공동체 정신을 함양시켜 나갈 수 있다.

또 시청사와 안전체험관 등 생생한 행정현장을 체험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 초등학교가 많아 당초 1회 1개반에서 2개반으로 확대했지만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광주지역 초등학교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체험학습 등과 연계된 '공무원 진로체험 더하기 소통'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도시와 공동체 문제를 성찰하고 더불어 사는 광주의 모습을 그려보는 프로그램으로 12일부터 시작된다.

청소년들과 소통, 진로체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공직 소개'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청년강사의 '희망소통강연', 참여자 조별로 부여된 과제를 풀어가는 정책미션 '나는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교육부 온라인 사이트 '꿈길'을 통한 진로체험 평가에서 4.8점(최고 5점)을 획득하는 등 참여학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진로체험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새싹자치교실' 총 3개 학교 10개반 215명, '공무원 진로체험 더하기 소통 운영' 총 6개 학교 17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정찬 시 지역공동체추진단장은 "미래세대 소통프로그램은 교육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교육공동체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며 "광주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미래세대 주역들이 행정현장 체험을 통해 지역의 쟁점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야구 보고 헌혈 기쁨도 광주시는 제1회 헌혈 및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해 지난 8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시, 대한적십자사, 4개 장기기증재단과 함께 헌혈 및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시 제공〉

가을철 잦은 산악 사고 무등산 장불재에 소방헬기 근접 배치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가을철 급증하는 탐방객 산악사고와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0월29일까지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에 소방헬기를 근접 배치한다고 밝혔다

무등산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국립공원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에 따라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며 탐방객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300여만 명이 찾았다.

이에 따른 실족, 질환, 조난 등 각종 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246건의 구조출동으로 294명을 응급처치 및 구조했다. 탐방객 안전사고는 주로 9~10월과 주말·공휴일에 많았으며, 특히 오후 1시~오후 4시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주말과 공휴일에 소방헬기를 이용해 입산객 주의사항과 산불 예방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사고 접수 시 신속한 항공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태길 119특수구조단장은 "입산 시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고, 가급적 2인 이상 함께 산행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산악사고가 발생하면 119에 구조요청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119신고앱을 이용하면 사고장소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구조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지난달 23일 몽골 어르흥 마을에서 제8학교 기숙사를 보수한 뒤 마을주민들과 광주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몽골 친구 고향에 발전기 설치했어요" 광주청년센터 '아시안 프렌즈'

광주시가 운영하는 광주청년센터 the숲이 최근 '아시안 프렌즈'사업을 통해 광주-몽골의 우호증진에 기여해 주목 받고 있다. '아시안 프렌즈'는 광주청년센터 the숲이 한국전력공사의 글로벌 사회공헌프로젝트인 'KEPCO 대학생 해외봉사'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광주·전남지역 아시아 유학생을 선정해 그 학생과 연고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청년들이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외 자원봉사활동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2년째 추진한 '아시안 프렌즈'사업에는 지난 8월18일부터 26일까지 몽골 다르한(Darkhan) 시의 어르흥(Orkhon) 마을에 청년 33명을 포함해 35명의 대원들이 파견됐고 광주시 청년정책과 직원들과 시의회 조세철 부의장, 김보현 행자위원장이 동행해 봉사활동을 도왔다.

몽골 다르한 시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조선대 박사과정에 유학중인 '아노' 씨의 고향으로, 청년들은 몽골 다르한 도심에서 차로 4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부렌톨거이 마을의 게르 유치원과 어르흥 마을의 제8학교 기숙사 등 두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청년들은 각자 설비, 벽화, 의료팀으로 나눠 봉사활동에 나섰다.

설비팀은 전기 사용이 어려운 게르 유치원에 한국전력과 협력해 태양광 발전기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벽화팀은 기숙사 벽면에 바다가 없는 몽골을 고려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자 고래를 크게 그렸고, 벽화의 오른쪽 끝에는 드넓은 초록빛 초원과 몽골 전통 가옥 '게르'를 배경으로 그네를 타는 소녀 옆으로청년들과 동네 주민들이 함께 손바닥 도장을 찍어 꽃이 핀 큰 나무 모양을 추가했다. 문화 교육 프로그램 또한 성공적이었다. 다르한 시 활동 마지막 날에는 '광주-몽골 문화교류의 날' 행사도 열렸다. 청년들은 태권도 시범·한류 아이돌 공연·몽골 전통 동요 공연을 펼치고 몽골 학생들은 전통 무용과 노래 공연 등을 선보였다.

이번 활동에는 한국전력공사가 게르 유치원 전력공급을 위한 태양광 설비공사, 제8학교 기숙사 마루바닥 공사를 후원하고 광주시는 1000만원을 후원해 기숙사 창틀 샤시 교체공사와 생활이 어려운 몽골의 신장 투석 환자들을 위한 비영리자선병원인 '아가페 기독병원'에 신장 투석기 필터 구입비용을 지원해 '아시안 프렌즈' 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명동 개성 지키기, 업주들 직접 나선다

위해업소·프렌차이즈 진입 막기 대책 마련·조례 추진

최근 광주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동구 동명동, 장동 카페거리 업주들이 자체적인 모임을 만들어 위해업소나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의 진입을 막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거리를 발전시키고 유지해온 기존 업주들이 임대료 상승이나 거리 쇠락 등으로 자칫 거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였던 동구 동명동, 장동 일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선 이후 외부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 메뉴 등이 독특한 카페, 음식점 등이 생겨나면서 학생,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카페거리에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기존 업주들이 지난 7월부터 모임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 업주들은 인근에 입주해 활동중인 예술인과도 연대해 외부 대형 자본이나 위해업소의 카페거리 진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모임을 하면서 업주들은 거리 청소, 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나 주차 등 지역 문제 해결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전영원 동구의원은 "임차인들의 단결과 지역민과 함께 하려는 의지, 헌신이 보인다면 건물주들도 함께 해줄 것"이라며 "지금처럼 맛집, 멋집 거리가 된 것은 건물의 가치를 높여준 기존의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건물주와 세입자가 함께 이 거리를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동구 동명동, 장동 일대 카페거리의 존속을 위해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카페거리 업주들은 오는 26일에도 모임을 갖고 세입자 경험담과 인기를 끌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기존 상인들이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1918송정역시장의 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재난대응훈련 시민체험단 10명 모집

광주시는 오는 10월30일부터 5일간 실시하는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체험단 10명을 모집한다.

안전한국훈련 시민체험단은 민간 전문가인 단장과 함께 훈련 기획부터 실시까지 훈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또는 재난분야에 관심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15일까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체험단은 성별·연령별·직업별 안배하고 참여 의지 등을 종합해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G.O.Auct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음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하남대로변 위치좋음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법원 앞 위치좋음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 5억6천500만)

병 원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1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1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1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망)

토지 추천 물건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병원적합, 골프장, 대형식당, 최적합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